조경의 경계를 넘어, 조경 속으로

슈벤두 샤르마
어포레스트 설립자 겸 디렉터

글 최이규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뉴욕지소장

17

Shubhendu Sharma

FOUNDER & DIRECTOR, AFFORESTT

이 꼭지를 연재하고 있는 인터뷰어 **최이규**는 1976년 부산 생으로,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뉴욕 오피스를 이끌며 10여 차례의 해외 공모전에서 우승했고, 주요 작업을 뉴욕시립미술관 및 소호, 센트럴파크, 두바이, 올랜도, 런던, 위니펙 등지의 갤러리에 전시해 왔다. 저서로 『시티 오브 뉴욕』(공저)이 있다.

슈벤두 샤르마가 직접 조성한 그의 집 뒷마당의 숲

숲이 상품이 될 수 있을까? 정원이나 공원을 만드는 일이라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숲, 그것도 자연의 모습을 꼭 빼닮은 숲 또한 기업의 이윤 추구 영역이 될 수 있을까? 좀처럼 확신이 안 선다. 우리에게 숲 만들기란 그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식의 공익 광고 혹은 초록색 작업복으로 상징되는 새마을 운동을 연상시키거나 목재로 쓰기 위한 열대우림, 캐나다의 대규모 조림 사업 등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건강한 숲 자체가 상품이 되는 세상으로 진입했다. 여기서 '건강함'이란 휴양림 광고에 쓰일 법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높은 종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이며 숲으로서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통과함을 의미한다. 인도의 무모한 청년, 슈벤두 샤르마가 설립한 숲 만들기 전문 기업 어포레스트가 해내고 있는 일이다.

'숲, 1년에 1미터 성장 보장', 어포레스트가 내건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다.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심지어, 샤르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0년 걸려야 만들어지는 숲을 10년 내에 만들어 드립니다", 혹은 "10년 걸려야 만들어지는 숲을 1년 만에 만들어 드립니다". '숲이 무슨 콩나물시루도 아니고 정말 가능한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영 미심쩍기도 하다. 비밀은 뭘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 어포레

스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숲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숲이란 그저 나무의 집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 벌레, 동물, 온갖 종류의 다양한 식물이 함께 할 때 온전히 숲이라 불릴 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화, 하모니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숲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샤르마는 생태적으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숲은 훌륭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원래 토요타 공장에서 일하던 산업 엔지니어였다. 어느 날 공장 주변 숲 조성을 위해 방문한 일본의 저명한 식물학자 아키라 미야와키Akira Miyawaki 박사의 강연을 듣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후 숲 만들기를 새로운 일생의 업으로 삼고 진로를 바꾸었다. 즉 어포레스트는 미야와키의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잠재 자연 식생 potential natural vegetation 이론'과 경험에서 출발했다. 이에 더하여 어포레스트는 공학적 마인드와 IT 문화, 인도라는 지역적 환경을 접목시켰다. 과학적인 프로젝트 진행 방식과 효율성 추구, 모니터링, 경이로운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전직 엔지니어로서의 면모를 숨길 수가 없다.

어포레스트의 방식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환영 받은 것은 아니다. 환경운동가에게 접근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은 숲을 만드는 일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조경가에게 갔더니 그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것들조차 깡그리 베어버리고 다른 대륙에서 수입해 온 잔디밭을 만드는 데에만 열중했다. 샤르마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 숲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샤르마의 '종다양성'은 추상적인 구호이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먼 열대우림에서나 거론될 만한 과학 용어가 아니다. 그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물다양성을 우리 이웃에서 지금 이 순간 만들어 내고 있다.

중앙 인도 지방에 조성한 숲.
조성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무들이 사람의 키를 웃자랐다.

Q
&
A

어포레스트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 광고.
15개월 만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Q.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는 북인도 카쉬푸르Kashipur가 고향인데, 지금은 인도 IT 산업의 중심인 방갈로르Bangalore에 살고 있다.

A. 산록부의 매우 작은 마을이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는 히말라야의 산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인도 최대의 야생 호랑이 보호 구역인 짐 콜벳 국립공원Jim Corbett National Park과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실제로 호랑이 사냥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도판 아프리카인 셈이다. 내가 뒷마당에 숲을 만들고 난 후 나무들이 자라 더 이상 산이 보이지는 않는다.

Q. 'Afforestt'에서 t가 왜 두 개인가?

A. 하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회사를 차리기로 결정했을 때 'Afforest.com'이라는 도메인 명은 이미 태국의 어떤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다. 벤처 기업으로서 도메인명을 구매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던 짐 콜벳을 기리기 위해서다. 그는 사냥꾼이었는데 마을을 공격하는 호랑이 수백 마리를 처치해 소중한 인명을 구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 갈등의 원인이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의 영역을 침범한 농토 개간과 숲의 소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짐 콜벳은 인도에 처음으로 야생 동물 보호 구역과 국립공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당시 대부분의 영국인은 인도를 그저 제국주의의 시장으로만 생각했지만 짐 콜벳은 인도의 땅과 인도인을 살리기 위해 일했다. 두 개의 t는 그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내가 처음 생각했던 회사의 이름이 'Corbett Forest Making Company'일 정도였다. 물론 고민 끝에 결국 Afforestt로 바꾸긴 했지만 짐 콜벳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그런데 나의 일본인 친구가 tt를 나무 木자 두 개로 쓰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지금 우리 로고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자를 안다면 수풀 '林'자는 읽을 수 있으니 더 좋지 않은가.

Q.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 내용에 의하면 어포레스트는 '자연적이고 야생적이며 관리가 불필요하고 자생적인 숲'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어포레스트가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은 노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연스럽게 씨앗이 날아와 생기는 숲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고객의 입장에서 굳이 어포레스트의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어포레스트 방식은 그러한 자연적인 숲의 생성 과정을 몇 배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즉, 100년이 흘러야 생길 수 있는 숲을 우리는 10년 안에 만들 수 있다. 10년이 걸리는 숲 정도는 하루아침에(그만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

Q. 핵심은 속도라는 뜻인가?

A.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종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관행적인 임업을 통해 숲을 만들 경우, 인공적으로 식재된 나무가 자연적인 천이 과정을 거쳐 극상림에 도달하려면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아하는 씨앗들, 특수한 환경에서만 번식하고 자라는 종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포레스트는 이러한 환경적 조건을 단기간에 조성해주어서 다양한 종자가 일시에 발아하게 된다. 물론 숲의 복잡성complexity과 생물 종다양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할 경우, 천 년의 숲에서나 가능한 조건이 하루아침에도 만들어지게 된다.

Q. '1년에 1미터 성장 보장'이라는 어포레스트 방식이 꽤나 매력적인 마케팅 카피였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여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 달라. 그리고 당신이 처음 영감을 얻은 미야와키의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자연적인 숲 생성을 촉진하는 어포레스트 방식은 여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토양 조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토양은 식물의 입장에서 음식의 공급처다. 병사가 제대로 음식을 보급 받지 않은 채 싸울 수 없듯이 나무 또한 충분한 영양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족한 음식이 무엇인지 찾는 일이다. 우리는 이 영양소를 화학적인 과정이나 영양분의 수입

을 통해서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숲이 조성되는 곳 주변 마을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지역적인 바이오매스를 수집해 퇴비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 즉 질소가 부족할 경우, 질소가 풍부한 잡초가 많은 곳을 찾아내 제초도 하고 잘라서 퇴비로 사용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역의 가축 분뇨를 이용하기도 한다.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서는 상한 토마토를 모아 만드는 식이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바이오매스가 있는데 우선 공기 구멍 재료perforation material라고 부르는 성질의 바이오매스가 있다. 흙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수분이 침투해 퍼지기 쉽게 만든다. 두 번째는 보습성water retention 재료로서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는 성질의 바이오매스를 가리킨다. 세 번째는 물론 영양 공급nutrition 재료다. 토양을 분석한 후에 이러한 재료들을 인근에서 찾아 흙과 섞어준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식물의 성장을 돕는 기본적인 토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 자생종을 조사한다. 특별한 인공적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건강히 잘 살아가고 있는 종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풍토에 최적화된 자생종만큼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줄 수는 없다. 우리는 그저 식물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각의 식물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한 왕성한 에너지와 성장력은 오염을 정화하고 동물과 공생하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한 숲이야말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숲이다. 도시에서 먼 곳에 큰 규모의 숲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을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발치 가까운 곳에 놓인 숲, 뒤뜰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숲이 건강하다면 사람들은 거기서 열매를 따거나, 그곳에 깃든 것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숲과 일상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다. 조사에서 만들어진 목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식재할 식물이 선정되고 양묘장에서 기르게 된다.

한편, 우리는 굴착기를 이용해 대상지 전체를 1미터 이상 파내어 뒤집고 바이오매스와 섞는 작업을 한다. 실제로 식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부드럽고 습기를 잘 머금은, 먹거리가 풍부한 토양 환경이 완벽히 갖추어지게 된다. 식물의 뿌리가 흙 사이를 자유자재로 뚫고 거침없이 자랄 수 있어서 3개월만 경과해도 거의 대부분의 묘목이 1미터 가까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풍부한 물과 영양을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포레스트의 방식이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택에 작은 숲을 조성하고 있다.
약 74m^{2}의 땅에 240그루의 묘목을 식재했다.

어포레스트가 숲을 만드는 방식

어포레스트가 조성한 지 2년 된 숲

슈벤두 샤르마가 조성한 숲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Q. 우리의 상식과 달리, 어포레스트는 관행적인 조림보다 약 30배 많은 수의 묘목을 심는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밀도가 아닌가? 식물의 세계에서도 치열한 경쟁 환경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것인가?

A. 우리는 볏짚 등을 이용해 충분히 멀칭을 하면서 동시에 인력을 투자해 잡초를 제거하는 집중적인 관리를 6개월 정도 계속한다. 수목이 빨아들일 영양분을 초본류에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다. 8개월에서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한다. 지적한 대로 묘목들이 매우 빽빽하게 심기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묘목에게 공통적으로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하나의 과소한 자원, 햇빛을 얻기 위해 수직으로 전력 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철저히 수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식물이 번성할 수 있는 공생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 경쟁을 도입한다. 제한된 먹거리를 빼앗기 위해 서로 아귀다툼하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풍족한 토대 위에서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경쟁이다.

Q. 현재의 조경 방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종다양성은 그처럼 중요한가? 심지어 도시 환경에서도 높은 종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현재 관행적인 조경 방식은 지속적이지 않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단선적linear인 과정에 있다. 엄청난 양의 독극물과 화학 비료가 투여되어야만 잔디를 관리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키운 바이오매스를 누군가의 인력을 통해 또 다시 많은 에너지를 들여 깎아내 버린다는 데 있다. 어차피 곧 깎아 버릴 것을 열심히 키우는 꼴이다. 내 관점으로는 곧 사멸할 방식이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가뭄)은 지구 전체에 확산될 수 있다. 물이란 결코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오직 절약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길이고, 또 자연적인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조경을 이야기하면서 멋들어진 잔디밭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한 뙈기의 잔디밭을 녹색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지 현재 그를 둘러싼 경제적 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조경이란 우리가 가난해지는 순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올해 정원 관리 예산이 전무하다고 하자. 1년도 못 가 자생 식물이 그곳을 장악하게 되고 천이가 진행된다. 즉, 한 세기 동안 조경가가 발전시켜 온 것이란 땅이 본래의 숲으로 돌아가려는 자연적이고 토착적인 성질을 누르고 분칠한manicured 것 같은 풍경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는 기술이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짓누르는 무게를 절감하고 있다. 현실을 바꾸고자 하지만 답은 오리무중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포레스트는 하나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조경 즉 디자인된 경관에 대해 말해 둘 것은 그것이 어떤 '영감—대부분의 경우 무척 생경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쉽게 예를 들어, 뉴욕의 정원을 모로코식으로 꾸미는 것은 전혀 별난 일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모름지기 조경가, 혹은 조경을 예술의 한 장르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긴 비전을 가져야 한다. 삼백 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에 대한 조경가로서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의 작품이 불과 한 달만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엉망이 되어 버린다면 그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술가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인가? 조경가는 토착의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Q. 어포레스트가 제시하는 관리 기간은 초반 3년이다. 물을 주고 제초하는 3년 간의 관리 후에는 관리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말인가?

A. 그렇다. 식물의 발아력이 왕성한 인도의 기후 조건에서는 대개 2년으로 단축된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슈퍼마켓에서 산 것보다 신선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오늘 고향집에 사는 누이가 뽕나무에서 수확한 오디mulberry 사진을 보내왔는데 한번 보기 바란다.

Q. 건조 지역에서 숲 만들기는 어떤가? 인도에서도 라자흐스탄 지역 같은 곳은 강수량이 부족해서 아무리 어포레스트라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A. 물론 건조 지역의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지방의 토착 수종이 물을 적게 소비하고 스스로 저장해 사용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지역에 늘 푸른 숲을 만들겠다는 반자연적인 구상을 내놓기도 한다. 자생종은 자력으로 생명을 이어나가는 데 매우 강하다. 물을 과다하게 주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된다.

우리의 방식은 이렇다. 우선 이미 설명한 대로 자생종 목록을 작성하고 식재종을 선정한다. 그 다음, 그 지역의 다년간 월별 강수량 자료를 검토해 강수량이 가장 풍부했던 해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2년의 관리 기간 동안 그 강수량에 못 미치는 양에 대해서만 추가로 관수를 실시한다. 이것이 숲의 나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물과 영양분을 주었으니 지체 말고 자라라는 것이다.

어포레스트의 첫 번째 주택 프로젝트.
나무를 심은 지 20개월만에 정원에 작은 숲이 우거졌다.

Q. 지금까지 어포레스트가 겪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꼽으라면?

A. 첫 번째는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해야겠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도에서는 자생종 수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묘목장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샘소나이트 인도 공장으로부터 50헥타르 규모의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현재 도시 지역에서 다량의 토착 수목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사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그 지역의 자생종인지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어포레스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동적인 자생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구글 지도와도 연동된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자생종 나무들의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 사람들이 화원에 가서 자생종을 찾는 요구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생종의 생산과 유통 또한 활발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계획 같지만 나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단지 5년이냐, 10년이냐의 문제다. 현재 미국의 실험적인 사회적 기업인 오픈 소스 이콜로지Open Source Ecology(미국 미주리 주 농장에서 말친 자쿠보스키에 의해 설립된 회사. 농기계 등의 DIY 설계와 제작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개방해 공유함)와 협업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그들의 농장에 숲을 만들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 각자가 숲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첫 번째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묘목장, 바이오매스, 토양 측정 등을 경험하면서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쌓도록 한 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숲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할 것이다.

Q. 근래에 들어본 것 중 가장 멋진 프로젝트인 것 같다.

A. 아이들의 장난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난다. 어포레스트 또한 오픈 소스 이콜로지가 공유하는 기술을 이용해 숲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제작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2년 걸리던 숲 만들기가 7~8개월로 단축되고 더욱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서 우리는 매우 운이 좋았다. 첫 3~4년, 가장 힘든 기간을 다행히 헤쳐 나왔다. 자연적인 숲 만들기, 농업, 조경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일은 결코 라이선스나 특허 등의 배타적 방식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정보를 독점하기보다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방식이 주류로 설 수 있다. 그때 가서 시장과 산업이 커지면 진정한 경쟁이 의미 있게 된다.

Q. 조경가로서 단독 주택에 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해 보면 해충이나 동물에 대한 염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어포레스트의 대답은 무엇인가?

A. 인도에서는 특히 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 대답은 이렇다. 당신이 숲을 만들어주면 뱀은 절대 당신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야생 동물의 서식처를 없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야생 동물이 숨고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인간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두 번째, 해충의 문제다. 사람들은 묻는다. 숲을 만들면 곤충도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 곤충들은 모두 해충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익충인 경우가 많다. 그들 없이는 과일이나 종자 번식이 불가능하다. 수목의 종류를 다양화하면 곤충이나 조류의 과도한 번식을 막을 수 있다. 가끔 큰 피해를 주는 병충해는 본질적으로 단일 경작에 원인이 있다. 한 종류의 과일 나무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면 급속한 확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포레스트 숲은 과실수의 비율을 1/2에서 1/3 정도로 유지한다. 그러한 균형을 지켜야 한다.

Q. 산업공학 전문가로서 숲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A. 나는 항상 기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토요타 인도 공장에 취업했을 때, 나에게는 꿈의 직장이었다. 산업 엔지니어로서 매우 만족스러운 일임에 분명했다. 우리는 매우 바빴고 주 6일 근무에 야근도 잦았다. 6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 일본으로부터 아키라 미야와키 박사가 숲을 만들기 위해 왔다. 너무나 바쁜 일정에 시달렸기에 사무실을 벗어나기 위해 반나절 정도 그의 강의를 듣고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나에게 그 반나절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어포레스트를 만들기 전, 우리 집 마당에서 스스로 실험하고 확인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약 2년 걸렸다. 토요타에서의 경험과 미야와키 씨와의 만남 등은 나에게 무척이나 행운이었다. 당시 절친한 동료 중 한 명 또한 직장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둘은 회사를 차렸고 모든 일을 토요타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전념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에 대한 포커스를 놓치지 않는 일이었다. 우리는 숲 만들기 외에 부업으로 조경 관리나, 탄소 저감 사업 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숲 만들기에만 집중했다. 심지어 숲 만들기 외부 강연을 갈 때에도 나의 첫 번째 조건은 강연 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숲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숲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했지 숲 만들기에 관한 지식을 파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3시간 동안 듣고 박수 치고 일어나서 헤어지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직접 손에 흙을 묻혀가며 나무를 심고 3년간 그 숲을 관리하고 키운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나의 강연을 듣는 단체는 모두 그러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Q. 재정이 불안정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숲 만들기라는 명분으로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를 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영리 기업의 형태를 택했는가?

A. 처음에는 나 또한 숲 만들기에 관련된 수많은 비영리단체 중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영리단체들과 대화해 본 결과, 그들의 독특한 윤리 의식과 조직 문화가 나와는 맞지 않음을 깨달았다. 비영리단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영리단체의 특징은 결국 그 책임자의 역할이 펀드레이징으로 점철된다는 점이다. 나는 절대 그런 최고경영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부자들 뒤에 서서 함께 사진이나 찍으려고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나무를 심는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었고 명분을 들이대며 기부를 바라기보다는 확실한 값어치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당한 프로페셔널로서 보수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수많은 숲 관련 비영리단체들과 구분되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저 행사용 제스처로서 '어머니의 품 같은 대지', '지구를 구한다', '환경을 살린다', '새들을 보호하자' 등과 같은 윤리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숲을 만들어줄 실력을 가진 그룹은 그들이 아닌 우리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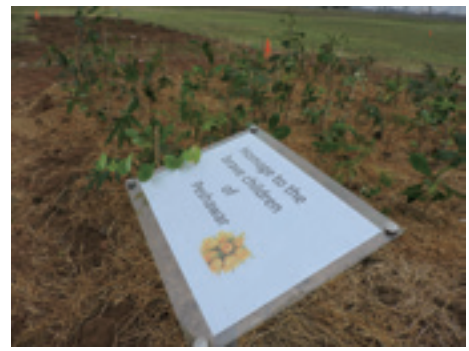
처음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해진 후에도 그저 자신들의 기업 홍보를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땅이 있는지 물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숲을 만들 땅이 없다면 대답은 언제나 거절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태도는 거꾸로 많은 대중적인 존경과 신임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를 향한 존중은 우리가 가진 사회적 비전이나 대의명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 바로 그 자체에서 온다.

우리는 항상 비포 앤 애프터before & after 사진을 즐겨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을 본 사람들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비용, 심은 나무의 수와 종을 묻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에게 중요한 것은 사업의 크기, 파급 효과 등과 같은 숫자다. 우리에겐 작고 큰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와 어포레스트 팀이 쓸데없는 서류 작업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기업 이윤의 0.001퍼센트를 기부받기 위해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또한 영리 기업의 좋은 점은 일단 모멘텀이 마련되면 상당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비영리단체는 어느 시점에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샘소나이트와 같은 고객은 우리가 비영리를 내세우는 단체였다면 아예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매니징 디렉터와 사업 대 사업 간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대화할 뿐, 그들이 우리에게 신뢰성을 증명하라거나 파급 효과에 대한 스터디를 제출하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지이고 숲을 만들기를 원한다. 얼마면 되는가?" 이렇게 간단하다. 우리는 정당하고 충분한 가격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Q. 어포레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분야의 평가는 어떠한가?

A.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인도에 유명한 호랑이 보호 운동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숲이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고 다닌다. 환경 분야의 비판적인 관점에는 이유가 있다. 환경론자들은 상당 기간 사람들이나 정부로부터 외면을 당해 왔고 그들의 좌절감은 상당하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환경운동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그들은 정치적 판단에는 무척 강하지만 어떤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밤새서 블로깅, 트위터를 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거나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벌거벗고 행진한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운동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논쟁과 논의와 다큐멘터리는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두 손과 땀으로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만드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진 제공** AFFORESTT



지난해 파키스탄 페샤와르 지역의 학교에서 일어난 테러로 희생된 150여 명의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작은 숲을 조성했다. 희생된 학생의 수만큼 묘목을 식재했다.